



이 畫面은 二二·〇 cm × 二三·五의 極小形斷片을 圓形 額에 넣은 것인데 圖書館에 收藏된 記錄을 보면 元來 光山 金長生(號 沙溪 官、刑曹參判 西一五四八一—一六三一) 先生 後孫집에서 傳來하여 오던 것으로서 倭政時 日人 森悟一에게 넘어갔다가 同人에 依하여 一九三

四年에 收納된 것으로 되어 있다.

畫面은 絹本着色의 細密한 彩畫로서 三人의 騎馬人物이 노루인지 사슴인지 뒤고 있는 動物을 中心으로 左, 右, 後面에서 追擊하고 있다.

左後의 人物은 各各 화살을 쏘은 동개를 佩하고 활을 들었고, 右側의 人物은 긴 막대기 같은 것만을 들었는데 接近한 動物을 막 후려치려는 光景이다.

畫面이 甚히 剝落되어 무슨 絹地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畫面이 鮮明치는 못하나 極히 精緻巧雅하며 堅實한 筆力으로 보인다.

前記 國立博物館, 德壽宮美術館의 것은 모두 絹本着彩이며 그 筆意가 서로 一致하여 兩者가 元來는 同一 畫幅에서 切取한 것이 아닌가 一般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圖書館의 것은 이들과는 어떨까는 지 筆者는 지금 끝이 三者를 對照하여 볼機會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專門 大家의 考證을 바라며 다만 紹介만으로 그치는 바이다.

慶尙南道內의 最近出土 遺物

朴 敬 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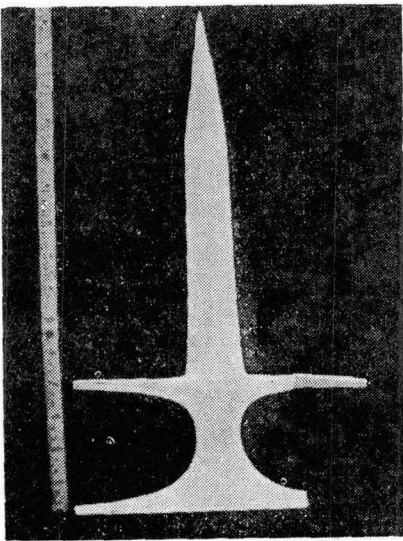
今春(一九六二) 以來 道內 各處에서 發見된 遺物中 蔚山에서 發見된 蓋石上에 積石이 있는 石室墓와 金海 長有面의 磨製石器와 銅鏃이 副葬된 石室墓는 附近의 支石과도 有關한 興味로운 遺蹟이므로 여기에서 出土된 遺物들을 簡略하게 紹介하고자 한다.

(1) 金海 長有面 堅穴石室과 遺物

金海郡 長有面 茂溪里 廣石部落에서 五月初旬頃 堅穴式石室 一基가 民家의 庭園整地中에 發掘되었는데 石室과 副葬品 등이 比較的 잘 保存되어 있었다.

堅穴石室... 石室의 平面은 長七·五尺 幅四尺의 넓이로 底面에는 밤자갈(栗石)을 約一寸의 두께로 깔았고 四方의 側壁은 自然石으로 싸고 天井은 自然板石 三개로 세로 並立하여 덮였다. 石室의 깊이는 計測할 수 없었으나 大略 地表面에서 三·四尺 程度였다고 하며 石室의 長軸은 正東에서 東北間으로 若干 틀어졌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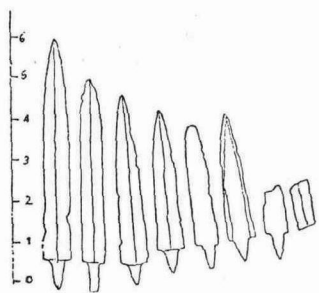
그 東端에서 彩丹土 器一個의 破片和 石鏃 銅鏃 管玉 등이 發見되었었고 石室의 中央部位에서 磨製 石劍이 「손잡이」를 東向하여 發見되었다고 한다. 아마 屍體는 東方을 頭位로



하여安置되었고石劍은 그의右手部位에副葬된것인듯하다.

遺物

一、磨製石劍 一長一五·三寸(寫眞) 白色에 가까운灰色粘板岩製로特히 손잡이部分이極度로發達된精巧한石劍이다.



二、磨製石鏃 八(圖面)

石劍과 같은材料로 만든 有莖柳葉形

인데長大한것은全長八寸에이르는것이있으며石材의自然무늬를살려서精美하게製作되었다. 八本中三本은折損되어있었다.

三、青銅鏃

一般으로腐蝕이甚하여全周綠銹로 덮여있는데其中一本은原形을알아보기힘들程度이나二本은長一·八寸、一·七寸으로橢圓體에雙翼이 붙은型式인듯하다.

四、管玉 三연두色碧玉?

長一·〇五寸×徑二·五分、長七分×徑二分、長五分×徑一·八分

五、丹彩土器

一(一〇餘片)으로破損되어復原하기어려우나胎土는比較的얇고모래가相當히混合되었으며外表面에丹을발랐다. 石鏃、銅鏃、管玉과같이石室의東端頭部位에서出土되었다.

六、支石

本石室이發見된地點에서東南으로五〇m가량의距離에巨大한支石墓一基가있는데完全히地上에들어난撐石은長約一五尺幅約四一·六尺地上高三·五尺의宏大한것으로廣石部落의이름도여기에由來한듯하다. 前記石室墓와의關聯이있는것으로보여진다.

(2) 蔚山 積石塚出土遺物

지난六月二十三日蔚山市신정리소정동의小丘陵上에서天蓋石위

에積石이있는小石室墓가同地區의道路工事を擔當하고있는國土建設團第二分團에依하여發見되고그안에서다음과같은副葬品을採集하였다고하는데蔚山市長의報告書에依하면그內容은다음과같다.

石室…… 밑바닥에는모난自然石을 깔고四面壁도같은 크기의돌로內彎하게築造하였는데石室의깊이는約一m가량이고底面의넓이는記錄이없으나單一石으로된天蓋板石의(長約一m幅七〇cm)크기로봐서底面은적어도長一·五m幅一m程度는되었으리라보고여겨진다. 天蓋石 위에는石室의 밑바닥에 깔렸던 것과 같은 모난自然石이 깔려 있었다. 發見當時 石室의 23가량은粘土가沈澱되었고 그 위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粘土層의下部即石室의 밑바닥에서 다음과 같은副葬品이發見되었다.

遺物

磨製石劍 一長四二·二cm(靑灰色)

磨製石鏃 三長一二cm·八cm·七cm(灰色)

石鏃은報告된寫眞과說明을綜合하면 스테이트製의有莖柳葉型인듯하고其外에短小한石片一個가寫眞에나타나있으나거기에對하여는아무런說明이없다.

이遺物들은現在慶州博物館에保管되어있다(이들은다시蔚山市에返還되었다).

(3) 密陽 三浪津出土遺物

六月初旬頃密陽郡三浪津面금세리의一石室墳에서出土되었다는遺物들을本道文化課에서보았다. 偶然히發見된石室墳에서出土되었다는것以外的情報은未詳하나附近에는六基의支石墓도있다고한다.

遺物……鐵斧三、鐵製鐙子一、鐵製轡一、鐵製雲珠(鍍金)一、素環心葉垂下飾金銅耳飾一、各種土器一〇餘點